생각이 물 흐르면 삶도 물 흐른다

(시편 14:1~7)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이 물 흐르면 삶도 물 흐른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생각이 물 흐르면 삶도 물 흐른다'
우리의 생각이 물 흐르듯 하면 우리의 삶도 물 흐르듯 흘러가게 됩니다.
전후좌우 상하 등의 차이를 순서라고 합니다. '순서(順序)'라는 단어는 순할 순(順)과 차례 서(序)를 사용합니다. 순서라는 말과 차례라는 말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차례 서(序)의 한 글자로 차례라는 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순(順)자를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順)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자형의 의미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내 천(川)자에 머리 혈(頁)자를 합친 글자가 순할 순(順)자입니다.
한 사람이 맑은 물이 흐르는 조용한 냇가에 앉아있는데 저 위쪽으로부터 버들잎 하나가 물의 흐름을 따라 내려옵니다. 버들잎을 지켜보는 이의 시선은 버들잎을 따라 상류로부터 점차 하류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곧 차례를 정할 때에는 물이 흐르듯이 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냇물에 떠가는 버들잎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 움직이듯이 순조롭게 차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년생 70년생 80년생의 자리를 정할 때에 나이순으로 차례를 정한다면 자연히 60년생 70년생 80년생으로 정하게 됩니다. 등수를 정할 때에도 자연히 기록이 좋은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록경기를 해놓고는 키 크고 잘 생겼다는 이유로 1등을 만든다면 그것은 물이 흐르듯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차례 서(序) 앞에 순할 순(順)자를 붙여서

물이 흐르듯이 정해야 한다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나 사건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할 때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순서만 제대로 정하면 문제도 물 흐르듯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판단하고 대처 방안을 계획하고 누구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 문제 자체의 차례를 정해야 합니다. 그 차례를 정할 때에 물 흐르듯이 순서대로 해야만 합니다. 순서는 곧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먼저 발생한 일에 대해 차례 매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에 삼각구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나 그 외의 시인들도 삼각구도 안에서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나의 몸을 포함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삼각구도 안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노래한 것입니다. 돈 문제가 발생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차례 매김에 있어서 물 흐르듯 흐르지 못하고 역류한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삶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기보다는 문제처리를 위한 차례를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삼각구도 안에서 물 흐르듯이 존재의 발생 순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게 급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만 합니다. 순서만 따르면 하나님으로 푹 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스 정류장처럼 잠깐 머물렀다 스쳐지나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인 문제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깊이 몰입해야만 합니다. 존재의 발생 순서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몰입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촉촉하게 젖은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계신다면 과연 이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삼성에 취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같은 바람을 가지셨다면 자녀들이 삼성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원하셨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몹시 속상했지만 하나님으로 푹 젖고 났더니 삼성에 못 들어 간 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문제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지만 일어나고 말았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

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푹 젖어있음으로 인해서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로 느낄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보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문제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계속 문제로 느껴지는 동안에는 문제는 결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발생의 순서에서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1등으로 차례 매김을 하는 것으로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무신론자들에 대한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7절에서 또다시 시온이 언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불렀던 것은 그때 이후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보고 그들이 무신론자로서 행동했기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하는데 이 노래가 참 이상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입으로 말을 하는데 '마음에 이르기를'라고 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다윗이 볼 때에 물 흐르듯이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존재 발생의 순서를 매기는 사람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내 마음이 생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존재 발생의 순서를 기억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에 돈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 생각으로 돈 문제를 붙잡았고 자연히 마음에도 돈 문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대상을 받아들이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선민들의 생각이 이와 같았습니다. 돈 문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돈 문제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심을 고백하는 무신론자들의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셔 들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른 장소에 빼앗기고 말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모셔 들일 수 있는 장소

가 내 삶에서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움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나 스스로 없애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각(知覺)'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백성들에게는 이 지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각은 곧 자신의 마음상태를 들여다보는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으로 인한 원죄의 체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먼저 끌어당겨서 마음을 이 세상의 문제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으면 그러한 마음 상태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니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제쳐두고 2017년 8월에 일어난 돈 문제를 마음에 담았다면 이것은 물 흐르듯이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기에 문제에 사로잡힌 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생 시절에 학교를 가려면 20분 정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수업시간 내내 집에 올 때까지 내 마음이 라면을 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라면이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면 될 것을 '내 마음이 라면을 보고 있었어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한 것입니다. 라면을 보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본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마음이 한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라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상태를 '라면 먹고 싶어 죽겠어. 학교에서부터 라면이 먹고 싶었어.'라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라면이 가득차서 라면이 내 마음을 장갑삼은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히 생각은 라면을 끓여먹던지 부모에게 끓여달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말의 뒤편에는 마음이 라면의 장갑이 된 상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각(知覺)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차서 세상 문제가 들어올 때에 '이건 아니다'라고 깨닫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각이 없다면 내 마음은 세상을 가득 담은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무신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이고 인격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한 상태의 하나님을 입으로만 부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이러한 자들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더러움과 청결함은 그 자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가 청결입니다. 반면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불결이고 더러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각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끌려가는 것은 원죄적 체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존재 발생의 순서상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보다 한~참 뒤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붙잡아 버리면 그 자체가 나의 삶을 역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으로부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해방의 역사를 기쁨으로서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라면에 붙잡히듯 돈이나 건강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어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몸에 병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앞서 계셨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죄의 체질상 병난 몸을 먼저 붙잡고 그 문제에 지배당하는 마음의 순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로 먼저 가기 위해서는 시온으로 가야 합니다. 즉 번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마음을 보내야만 합니다.

번제단을 바라볼 때에도 번제단 앞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지성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데,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라면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은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라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지성소인 그 거룩한 장소에(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감) 돈을 담고 자녀를 담고 건강을 담았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될 것이 지성소에 들어왔음으로 마음이라는 지성소는 더러워지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시온을 생각하면서 번제단에서는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더러워진 마음을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노예 된 상태에서 해방 되었던 것입니다. 라면에 장갑되고 돈에 장갑되고 건강에 장갑되어서 움직였던 마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고 돈 문제가 생겨서 돈 빌리러 다니는 행동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을 막연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발생의 순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순서를 따라서 먼저 마음이 하나님으로 촉촉하게 젖은 후에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인도하시면 가면 됩니다. 거꾸로 이 지각함이 없다면 건강 문제를 받아들여서 무조건 나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존재 발생의 순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원죄의 체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문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갑삼은 채로 두려움에 쫓겨서 판단하고 분석하여 행동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그 마음 통째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계셨음을 알고 물 흐르듯이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물 흐르듯이 순서를 고집하고 고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분히 젖고 나면 병 걸린 이유도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병에 걸리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생활을 반대로 해왔습니다. 병 걸리고 돈 문제 생기고 취직 못하면 이미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해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물망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행동했고, 마치 하나님이 실수라도 한 듯이 내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멋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데도 그 일이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이 나고 돈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문제로 마음을 채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문제에 사로잡혔던 내가 해방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만족해지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죽어가던 42살의 젊은 아빠가 저에게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뇌종양은 나를 42살까지 살게 하고 죽이고 있지만, 이 뇌종양이 내 마음의 종양을 없애는 유일한 치료약이니 목사님도 부럽지요?”라는 고백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 흐르듯이 순서를 정해놓으면 뇌종양으로 42살에 죽는 순간에도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이 망했다면 하나님이 모르시던 틈에 망했겠습니까?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 먼저 가서 존재 발생의 순서를 붙잡고 하나님으로 촉촉하게 젖게 되면 내가 왜 망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업이 망했음에도 기뻐하면서 만족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 흐르듯이 순서를 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죄의 체질 때문에 자꾸만 세상 것을 먼저 붙잡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원죄적 체질에 의해서 세상에 지배되는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복된다면 삶은 물 흐르듯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내 마음의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 바로 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